

진안홍삼축제 '팡파르'

백두한라예술단 공연·11개 읍면 주민들 희망 꽃탑 만들기 등 펼쳐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진안군이 주최한 2018 진안홍삼축제가 18일 열렸다.

이번 축제 '즐거라 진안! 마셔라 홍삼! 달려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21일까지 4일간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개막 첫날인 18일에는 제56회 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반개면 안전교육 공연, 탈북예술인으로 구성된 백두한라예술단 초청공연, 11개 읍면 주민들의 희망을 담은 희망 꽃탑 만들기 등이 펼쳐졌다.

오후 5시 30분, 마이산 북부 특설무대에서는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항로 군수, 신갑수 군의장, 일본 아야정 사절단 등 내·외빈과 군민, 관광객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홍삼축제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진안홍삼가공품 품질인증 받은 진안홍삼 다린액을 참석한 모두가 다함께 마시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명품 진안홍삼의 우수함을 직접 맛봤다.

바로 이어 펼쳐진 주제공연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금척설화를 담은 '금척! 하늘을 날다' 공중극에 공연으로 진안 마이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진안CI주관 진안홍삼노래자랑에 초대가수 지원이, 진



진안홍삼축제가 '즐거라 진안! 마셔라 홍삼! 달려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21일까지 4일간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몬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돼 최고의 축제로 준비했다"며 "명품 진안홍삼을 직접 맛보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이 다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니 깊어가는 가을날 멋진 추억과 낭만을 가득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홍삼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볼거리로 19일 리듬파워,

빈첸이 출연하는 1019청소년콘서트와 20일 송대관, 주현미, 김연자, 김용림, 한혜진, 박상철, 서지오, 설하은, 장민호 등 대한민국 트로트 별들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트로트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21일에는 진성, 금잔디, 조항조, 김난영, 임수정 등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을의 낭만을 더해줄 진안사랑음악회가 열린다. 부무대 2곳에서는 4일 내내 버블쇼, 폼바, 댄스, 밴드 등 매일매일 다채로운 공연들이 풍성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을 여행주간 장수로 놀러오세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내 숙박 시설·관광지 할인

장수군이 '2018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제공한다. 장수군은 오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관내 숙박 시설과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수군이 '2018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할인 행사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장수도개비점시관과 와룡·방화자연휴양림의 입장료(숙박·캠핑 제외)가 무료로 운영되며 장수승마체험장 체험료는 50%, 장수누리파크오트캠핑장 이용료는 20%할인해 제공한다.

또 장수온천호텔 객실료와 장수방화동캠핑장 이용료가 각 10% 할인된다. 특히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 운행되는 장수 시티투어 버스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오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 코스를 운행한다.

류지봉 과장은 "장수에서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가을 여행주간 할인혜택과 참여업체, 쿠폰 등은 한국관광공사 가을 여행주간 사이트(<https://travelweek.visit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다래 현장기술지원회 개최

농민청, 농기원 전문가들 함께 머리 맞대

무주군은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래 수확 후 품질의 특성과 관련한 현장기술지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기술지원회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관계자들과 무주군 다래 연구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수확 후 부패균 등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선도유지, 수확시기에 대한 예측, 저장을 위한 기술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다래 연구회 회원들은 "다래가 정확한 수확시기 판정이 어렵고 껍질이 얇아 수확 및 저장,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장 기술지원회가 애로사항들을 공유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법들을 찾는 과정이라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에서는 2012년 농촌진흥청 지역활력화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래 생산단지를 처음 조성했으며

현재는 22농가가 5.3ha 규모에서 다래를 재배하는 등 강원도 다음으로 넓은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장원 연구개발팀장은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가 소득과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꾸준한 교육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청정이미지에 걸 맞는 토종다래 생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배 농가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과 필요기술 해결해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발 1,600m 이하의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다래나무는 열매와 수액, 잎의 순(목나무)이 모두 식용 가능하며 비타민 C가 풍부한 피로회복에 좋은 뿐 아니라 소화불량과 갈증해소, 해열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용담호 상수원 지킴이 수질보전 성과

불법낙시·쓰레기 투기 등 줄어

깨끗한 용담호 만들기 위해 적극 앞장서온 진안군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가 19일 올해 활동을 모두 마친다.

총 45명으로 구성된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 까지 7개월 동안 주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용담호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와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 낙시행위 등 상수원에 대한 감시와 계도, 정화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용담호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 군은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불법낙시의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올해에는 집중호우 발생 전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집중호우 후에는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와 방치된 쓰레기 등 약 70톤 이상을 집중 수거해 용담호 수질 보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상시 감시활동으로 70여건을 적발해 현장계도 등 조치를 취했다.

군은 용담호 광역 상수원지킴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수질관리 교육을 2회 실시해 왔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역주민을 채용해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정화활동을 벌여 용담호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장수군은 18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관내 대학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 중 1인 또는 2인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있는 학생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 강소농가 경영개선 교육

무주군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추가교육이 18일 시작했다.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2018년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전북귀농·귀촌학교 김준성 대표와 비에스 랩의 한두현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으로 첫 날인 18일에는 귀농창업자금의 이해와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19일에는 농업관련 자금의 활용법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 응화에 대해, 29일에는 식품산업 가공 및 품질관리와 식품 트렌드 변화 및 분석, 그리고 30일에는 농·식품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전략을 비롯한 식품저장과 살균, 발효와 발효식품에 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하현진 강소농육성팀장은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지향하는 우리 군에서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반, 심화, 후속, 추가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더불어 농업발전을 일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유기동물보호센터 집중 점검

장수군은 18일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보호센터로 지정된 관내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으며 위생 상태와 유기 동물 분양의 적정성, 안락사 처리 관리, 관리대상 기록어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케이지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평균 20일 정도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에 비해 케이지 수가 부족하고 진료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기적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점검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청결한 환경에서 유기동물이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